



기획재정부

## 보 도 자 료

대한민국 대전환  
한국판 뉴딜

보도 일시	2022. 1. 17.(월) 14:30	배포 일시	2022. 1. 17.(월) 14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예산실 교육예산과	책임자	과장 권중각 (044-215-7250)
		담당자	사무관 송기선 (steamship@korea.kr)

## ‘그린스마트 스쿨’ 추진현황 점검 및 미래교육 간담회 실시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17일(월) 14:30 정산중학교(충남 청양 소재)를 방문하여 ‘그린스마트 스쿨’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미래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음

### <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: '22.1.17.(월) 14:30~16:00, 정산중학교(충남 청양 소재)
- 참석: (기획재정부) 제2차관, 교육예산과장  
(교육부) 기획조정실장, 미래교육추진담당관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과장  
(충남교육청) 부교육감,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 
(정산중학교) 교장, 학생 및 학부모  
(민간전문가) 유웅상 교육시설안전원 수석전문위원, 임오연 건양대 교수, 도종광 한국인프라컨설팅 대표, 최은희 센건축사사무소 대표

- ‘그린스마트 스쿨’은 ‘25년까지 노후 학교 2,835개소를 디지털 교육여건 조성 및 친환경 교사(敎舍)로 개축·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,
-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 공간 전환을 위해 총사업비 18.5조원(국고 30%, 교육청 70%)을 투자하는 ‘한국판 뉴딜’의 대표 과제임
- 이날 방문한 청양 정산중학교(1952년 개교)는 ‘그린스마트 스쿨’의 다양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공간혁신 우수 사례로,

- 학교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절반 가량을 태양광·지열로 생산하고, 빛의 양에 따라 햇빛을 조절하는 천창시스템과 천장 개방형 다목적홀 등이 구비되어 있는 ‘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’이며,
- 학생·교직원·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하여 다목적홀과 도서관을 연계한 학습·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간 혁신을 이루어냈으며, ‘2020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’로 선정된 바 있음

□ 안 차관은 먼저 학생들이 최첨단·친환경 학교공간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‘그린 스마트 스쿨’의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 정부의 ①재정지원 및 ②신속한 사전절차 진행, ③민간자본 유치(BTL\*) 등 전폭적인 지원내용을 설명

\* 임대형 민자사업(Build-Transfer-Lease) :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

- ① ‘22년도 예산에 기존 사업대상(761개소)과 더불어, 신규(518개소) 설계비를 반영\*하는 등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(943→ 5,194억원)

\* BTL 132개소 포함

- 공사 중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컨테이너 교사(敎舍)보다 단열 및 소음차단 효과가 우수한 ‘모듈러 건축\*’ 방식의 임시 교사 설치비용도 포함(1,156억원)

\* 사전 제작한 부품, 자재를 모듈 형태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방식

- ②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(761개소)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고, 2단계 이후 잔여 2,074개소는 예타를 신속하게 완료(‘21.11월) 하는 등 사전 절차를 적극 지원

- ③ 학교공간 전환에 민간의 창의력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물량의 25% 수준은 임대형 민자사업(BTL)으로 수행\*하여 학교 건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\* 투자규모(BTL 한도액) : '21년 1조 919억원 / '22년 7,957억원

□ 또한 안 차관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의 전년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, 올해부터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

- 임시교사에서 수업하는 학생 및 교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성·우수성이 검증된 모듈러 교사 제작업체를 선정하고,
-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·분진 영향 최소화를 위해 동·하계방학 중 공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되, 당초 계획한 사업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
- 특히, 대상선정 및 추진과정 등 중요 진행상황을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집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

□ 아울러, 안 차관은 정산중학교 교사 및 재학생·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,

-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첨단 교실환경을 구축하고,
- 원격등교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'학업보충 튜터링\*'을 제공하는 등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

\*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사업('22년 3,000억원)을 통해 교·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진행

설립 정보	단설 공립중학교(기숙형)	학생수	124명(남 65명, 여 59명)
	1952년 3월 14일	교원수	20명(남 7명, 여 13명)
기본 정보	<p>○<b>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</b>로 설계되어, 교육·소통·자연·친환경은 물론 학생 및 주민들 간 소통의 장 조성</p> <p>○1952년 개교하였으나 '20년 2개교(장평중·청남중)가 이 학교에 <b>통·폐합 및 이전·신축</b>하여 '20년 개교</p> <p>- 또한 '20년 우수시설학교(대상)로 선정되는 등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적합</p> <p>○농지 한 가운데 들어서 제방길을 따라 산책이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 수행</p>		
			
교육 정책 연계	<p>○<b>천장 개방형 아트리움과 도서관을 연계</b>한 자율 학습 및 소통 공간 제공</p> <p>- <b>오픈 스페이스 역사전시홀</b> 구현을 통해 학교 역사 홍보·교육에 기여</p> <p>○탁구장, 동아리실, 식당 등은 <b>지역 주민의 이용</b>이 원활하도록 외부 주차장에 인접시키고, <b>외부진입</b>이 가능하도록 설계</p>		